2014년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차 례

머 리 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해 2014 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2014 년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다.

이해에 조선로동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으며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2014 년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도서 《2014 년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2014 년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수호를 위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을 《로동신문》에 실린 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1. 주체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 지름길을 밝혀주시여

1) 장엄한 투쟁과 변혁에로 부르는 새해신년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1 일 새해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시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를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2014 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들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부문별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014 년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으며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방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과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조선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것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방도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2014년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에 대하여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주체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며 승리의 포성이였다.

2)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불멸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이해의 2월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월 25일 대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위대한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온 세계가 우러르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 태여난 조국에서 수십성상 그 위대한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하여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영광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1970년대와 같이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

력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박력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를 기어이 말살하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전개할데 대한 문제,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등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천명하심으로써 사상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 8 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미래를 밝힌 전략적대강이다.

2. 수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력 더욱 강화

1) 그리움과 신뢰심을 더욱 분출시켜

①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7월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여 참가자들과 함께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여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백두산대국의 힘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정, 운명을 함께 하는 총대동지, 총대전우가 되여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0돐 중앙추모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였다.

추모대회장인 평양체육관에는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과 자주시대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②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여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였다.

추모대회장인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잠겨있었으며 기발게양대들에는 조기가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충만되여있었다.

③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대의원선거와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제 1 차회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진군길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과시하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힘있게 전진하는 조선의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 전체 선거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 월 18 일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 1 3 기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 전체 선거자들이 당에 운명과 미래를전적으로 맡기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와 의사를 담아자신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다고. 자신께서는 여기에서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끼였으며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전체선

거자들이 자신에게 두터운 신임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생각하며 충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전체 선거자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를 잊지 않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들이 세상만복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 강성번영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월 9일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5호구 제43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조선인민군의 한 군부대 부대장에게 투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의원후보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부대를 찾아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선거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불패의 힘에 대한 일대 시위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4월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또다시 높이 모신 력사적인 시각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

정의 마음을 담아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리였다.

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제 1 차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해갈 조선의 전체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2) 온 나라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① 사상공세의 첫 포성을 울린 모란봉악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8 차 사상일군대회이후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하여 모란봉악단이 선전선동공세의 첫 포성을 울리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 월 중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출연자들은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사회주의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조선의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휘황찬란하며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앞길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의 세계를 가슴마다에 새겨주고 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

뢰심과 한없는 그리움,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감명깊게 보여준 공연은 장내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이께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조선의 전체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사상전의 일대 공세였다.

② 온 나라에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나래치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바람,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기 위하여 1 월에 엄동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안주지구 비밀근거지로 꾸려진 마두산혁명전적지는 조선서부일대의 지역적령도거점, 중요한 군사작전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한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등의 구호문헌을 보시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민족해방전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혁명정신은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로 된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전적지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조선혁명의 만년재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교양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전적지들의 관리운영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령에 따라 주체 103(2014)년 3월 23일부터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4월 1일 현지에서 그들을 만나시여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면서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보았을것이라고, 그 과정에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해 풍찬로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았을뿐아니라 조선혁명의 시원, 조선혁명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 잘 알게 되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련합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억세게 벼리여진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답사행군길에서 다진 조선혁명의 넋이며 생명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천백배로 발휘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가는데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조선혁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3) 청년동맹을 청년전위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청년동맹을 청년전위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를 발기하시고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9월 18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였으며 한평생 청년

들과의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조선청년들이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혁명의 년대와 더불어 창조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온 수령결사옹위의 전통, 영웅적투쟁전통은 조선청년들이 세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청년동맹은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라고 값높이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청년들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는 청년들이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데서 선봉대, 돌격대,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는것은 그이께서 서한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새시대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에는 청년들을 앞세우고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을 발양시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오시려는 조선로동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3. 인민군대가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1)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12월초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하늘과 땅, 바다, 최전연의 초소들에서 남편들과 함께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서있는 조국의 장한 녀인들이 수도에 모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에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대회에서는 사랑하는 남편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군인가족이라는 크나큰 자부심을 한껏 간직한 대회참가자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총화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군인가족들답게 살려는 불같은 결의들이 표명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령적인 서한에서 군인가족들이 지난 기간 최고사령관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군인가족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총쥔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군인가족들이 있다는 최상의 평가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회주의수호전에 한몸 바칠 각오를 안고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군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군인가족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가족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총잡은 남편들이 집걱정을 하지 않고 혁명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그들의 뒤바라지를 잘하며 언제나 화선에 선 병사의 자세와 립장에서 살며 투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2기 제5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무장력은 결코 강위력한 현대적인 타격수단들을 갖추고있어 강대한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사수들이 남편사수들곁에서 뒤바라지를 하고있기에 인민군대가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당과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가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고있다는것을 새삼 새겨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지지해주는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시였다.

2)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이 받아안은 사랑

12월 어느날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은 최고사령관과 마음도 뜻도 함께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인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후방일군들의 수고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후방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대회참가자들에게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 후방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후방일군들이 항일유격대 군수관들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군인들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 참된 동지가 되여 병사사랑의 길을 꿋꿋이 이어나감으로써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하루빨리 더 좋고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2월 27일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여식에 앞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빛내이자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오직 당만을 믿고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당이 제시한 올해 물고기잡이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조국보위초소는 물론 주요공장, 기업소들과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화력발전소와 탄광들에도 공급되였는데 군인들과 인민들이 물고기를 받아안고 좋아하는 보고를 받을 때면 기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의 걱정을 덜어주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해 온 한해동안 육체적부담을 이겨내면서 바다와 싸워 이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올해 대고조투쟁에서 제일 위훈많은 투사들로 내세워주고 축복해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게 하여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일어난 불씨가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다음해에 점령해야

할 물고기잡이목표와 군인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줄수 있게 물고기저장과 보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수산사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추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하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혁명군악은 인민군대의 상징이며 얼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연주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장중한 울림과 경쾌하고 호소적이면서도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선률로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휘날리며 백승을 떨쳐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기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긍지높이 구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이번 연주회가 새해에 들어와 자신께 큰 힘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군악단 창작가들과 연주가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주회의 곡목선정과 편곡을 아주 잘했다고 하시면서 특히 섬세한 예술적형상과 풍만한 울림으로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구가한 취주악 《조국찬가》를 잘 형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은 인민군대의 상징이며 얼굴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들의 정신력과 기상을 보여주고

인민군대의 군풍을 확립하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군악을 더 높이 울려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군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4)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어느날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조선인민군의 어느한 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명당자리에 특색있게 일떠선 축사들과 아담한 살림집들, 풀판마다에서 구름처럼 떼지어 흐르는 염소, 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한폭의 그림같다고, 한적하던 산골마을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육종연구소에서 조선의 기후풍토와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의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들을 육종해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과학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육종장이 현대적이며 세계적인 육종장으로 전변됨으로써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육종장은 우량품종의 풀먹는 집짐승육종 및 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고 널리 보급하는데서 중심기지, 거점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풀먹는 집짐승기르기에서 사료단위를 낮추기 위한 사업,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 우리 식의 풀판조성 및 재배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사업, 고기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그 가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원림록화를 더 잘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육종장은 볼수록 장관이라고, 그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군인건설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에 떠받들리워 조선의 거창한 창조물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5) 물고기잡이에서 제일 앞장선 제18호수산사업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어느한 군부대관하 １８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１８호수산사업소 책임일군들에게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이룩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왔다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앞장선 이곳 수산사업소와 인연을 맺게 되여 기쁘다고,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며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업소구내에 물고기비린내가 꽉 찼다고, 이것은 우리 군인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급식시키고싶은 최고사령관과 마음도 뜻도 함께 하는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도 황금해로 만드는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는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된 해라고, 인민군대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선기를 날리며 부두에 들어선 《단풍 2-04》호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요즘은 잠도 오지 않는다고, 자신께서 이렇게 기쁜데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부모들이 이렇듯 희한한 물고기대풍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１８호수산사업소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형단위라고 하시면서 사회의 수산부문을 비롯한 온 나라가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로공들에게 로동보호물자들과 식량, 기초식품, 부식물, 땔감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먼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는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화회관에서 수산사업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정책교과서와도 같은 공연, 우리 로동계급의 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시면서 천길 바다속 진주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 마음을 간직하고있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언제나 승리하는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당에서 준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수산사업소

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고 종업원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6) 새로 이름지어주신 《천리마타일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초 천리마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몸소 건설주가 되시여 굴지의 건재생산기지로 일떠세워주신 공장의 력사는 오래지 않지만 곳곳에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단히 중시하신 이 공장을 인민군대에서 운영하도록 과업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공장의 새 력사를 쓰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필요한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자면 공장에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영웅적투쟁정신이 나래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땅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의 이름을 **《천리마타일공장》**으로 명명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례년에 없이 높아진 올해 타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애국의 땀을 바쳐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고 하시면서 비결은 우리의 자원과 원료, 우리의 기술로 건재품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애국공장, 볼수록 멋있고 쓸모있는 공장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은 공장의 로동계급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기풍과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7) 종합적인 윤활유생산기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초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지윤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수자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우리 힘과 기술로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각종 륜전기재에 필요한 질좋은 윤활유와 그리스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의 질이 수입제품 못지 않다고 하시면서 윤활유와 그리스의 기술적지표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도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특히 종업원 일인당 록지면적이 세계적기준을 훨씬 릉가하고있는데 대단하다고, 기업소가 그대로 공원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이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료와 첨가제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이라는 명칭에는 백두산천지물처럼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당을 받들려는 공장로동계급의 마음이 어려있다고 하시면서 높은 생산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천으로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4.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1) 온실남새재배의 본보기단위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 월 어느날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6 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4 차례 다녀가시며 농업생산의 획기적발전과 농장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장이 수도시민들을 위한 남새전문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생산능력이 큰 수십동의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을 새로 건설하였을뿐아니라 이미 있던 온실들도 훌륭히 개건한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무슨 남새를 재배하는가, 통풍과 관수체계를 어떻게 세웠으며 온실남새종자보장체계가 어떻게 서있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며 남새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장려하라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오이, 도마도, 쑥갓, 부루와 같은 신선한 남새를 늘 먹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새온실을 품을 들여 꾸려놓았다고 해도 재배기술을

발전시키고 남새종자보장대책을 따라세우지 못하면 실질적인 덕을 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남새생산에서도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야 성과를 확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과학적인 온실남새재배방법을 완성하여 정보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농장의 생활환경과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새온실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온실건설과 운영을 당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당위원회를 통하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전국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받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2) 공업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2 월 어느날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당자리에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평양메기공장》**으로 부르도록 그 이름까지 지어주신 공장, 장군님께서 남기신 애국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메기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우리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사연을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 의리이며 본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에서 양어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온 나라에 양어열풍이 휘몰아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공장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공장구내에 정중히 모시여 이 땅우에 메기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함으로써 평양시민들과 봉사기관들에 메기를 떨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이 공장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며 그들의 생활을 풀어주기 위한 문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문제,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는 문제, 양어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들을 여러 단위들이 서로 공유하는 문제, 과학연구부문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을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 필요한 강력한 설계 및 시공력량을 파견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생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부문에서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 사상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산, 축산에 힘을 넣으며 바다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것과 함께 양어를 대대적으로 벌림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3) 두차레 찾으신 갈마식료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말 새로 건설한 갈마식료공장을 찾으시고 조업준비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동해지구에 일떠선 갈마식료공장은 명란젓, 창난젓, 말린 명태, 말린 낙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갈마식료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물고기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공장의 내외부를 손색없이 꾸리며 가공실들의 배수 및 통풍체계를 잘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생산현장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에서 맛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다른 나라 수산물가공품들을 압도하여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쾅쾅 쏟아져나와야 한다고, 그러자면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보장과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갈마식료공장이 나라의 물고기가공업을 발

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공장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어느날 새로 조업한 갈마식료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조업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당에서 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료보장체계를 바로세우는 문제,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 맛과 질에 있어서 갈마식료공장을 대표할수 있는 독점지표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문제, 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을 짜고드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갈마식료공장을 지난번에 돌아볼 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정말 잘 마감했다고, 공장안은 궁전처럼, 공장밖은 공원같이 꾸렸다고, 볼수록 아담하고 정갈하여 마치 휴양소와 같은 공장, 멋쟁이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4) 신발공업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우시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월 어느날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2월 이곳을 현지지도하시며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의 모양과 맵시, 무게에 이르기까지 세

심히 료해하시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하시면서 그 관철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 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더 잘 꾸려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발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제품의 경량화, 설비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계절과 용도에 따라 신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맵시있으며 가볍고 든든한 신발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으며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상표도안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생산하고있는 신발의 상표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기개와 승리를 상징하는 《매봉산》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줄수 있도록 공장을 가까운 기일안에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에서 직접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새겨진 원산구두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멋쟁이공장으로 꾸린 다음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그날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5) 양말생산실적으로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 어느날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 평양양말공장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대중소비품에 이르기까지 마음쓰시며 현대적인 양말생산공정들을 일식으로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010 년 12 월 몸소 이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녀자양말직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도 들어주시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생산능력을 더 확장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장군님의 은정깊은 조치에 의하여 현대적인 남자양말생산공정도 꾸려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양말공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은 특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말공장에 조성된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양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말에 대한 요구는 계절과 추세, 년령, 성별에 따라

각이한것만큼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가치를 보장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양말도안을 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기술준비와 제품생산, 포장, 판매에 이르는 모든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서 평양양말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6) 《왕》차가 수도의 거리를 쉬임없이 달리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2 월 어느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대로 콩우유를 많이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그들에게 콩우유를 떨구지 않고 정상적으로 먹이는것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을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수령님들처럼 아이들을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는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새로 정중히 모시여 공장에 어려있는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길이 전해가자고 하시였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일떠세워주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애기젖가루, 영양암가루, 각종 남새가루, 다시마가루, 물고기가루 등 젖먹이시기와 젖떼기시기 식료품만아니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콩우유와 콩산유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종합적인 어린이식료품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공장의 생산이 중단없이 정상화되였으며 《왕》차로 불리우는 콩우유차가 수도의 거리를 변함없이 달리는 사랑의 전설이 태여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은정깊은 조치에 따라 수도의 한복판으로 달리는 콩우유차를 볼 때면 콩우유를 먹으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그럴수록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더 잘 받들어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잘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자양분이 끊임없이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모든 생산공정들을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콩우유는 물론 여러가지 어린이식료품들을 대량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생산을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생산정상화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인민군대 식료공장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우리 당이 특별히 중시하는 공장,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콩우유를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7)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① 행복의 보금자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어느날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180 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이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현관홀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홀과 복도의 층고를 설정하고 녀성들의 취미에 맞게 벽색갈도 안온한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침실은 물론 도서실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목욕탕을 손색없이 건설했으며 식사실은 연회장같이 꾸렸고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도 현대적이고 최신식이라고 평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꾸린 공원을 보시고 마치 무릉도원같다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생전에 인민생활문제와 직결된 이 공장을 그리도 중시하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합숙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이 합숙을 로동자들의 궁전, 로동자들의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질좋은 옷감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5.1 절경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인민군총정치국장이 연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을 통하여 인민군대가 당의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하였다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건설자들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또다시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덧집을 짓고 그안에서 건설을 진행하는 투쟁자료를 매일 보고받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관철로 높뛰는 군인들의 심장을 혹한도 얼구지 못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일본새를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② 복받은 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2 월 어느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당에서 정해준 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였으며 년말전투에서도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을 만나보고싶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공장로동계급들을 무슨 말로 축하해주고 고무해줄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공장현판에 새길 글을 써달라고 하던 부탁이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라는 친필을 일군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해당 부문과 합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였으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일신시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 혁명사적교양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이 정말 많다고, 사진문헌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사상과 숭고한 애민관을 잘 알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종업원들속에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천생산을 늘여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질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울리고있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소리,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소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해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적수준과 생활상요구는 대단히 높으며 여러가지 질좋은 천제품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더 많은 천을 생산하고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으며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학생교복문제를 푸는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푸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학생가방용천생산에 필요한 기술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5. 온 나라가 밝아지게

1) 복받은 원아들

① 《아버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 월 어느날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애육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마음껏 뛰놀고 있던 귀여운 어린이들이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였다.

아이들을 한품에 꼭 안으시고 한동안 애들의 볼을 따뜻이 쓰다듬어주시던 그이께서는 몇살이냐, 아픈데는 없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육친의 사랑과 정을 어린 가슴에 받아안은 아이들은 그이앞에서 노래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를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따라 고운 옷도 입혀주시고 맛있는 사탕, 과자, 물고기와 과일, 꿀도 보내주시여 세상에 부럼없다고, 원수님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아이들은 목청껏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이들을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앞날을 축복해주신 그이께서는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보육 및 교양조건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육아원을 돌아보시였다.

애기방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잠자는 애기들의 모양을 웃음속에 보시면서 태여난지 얼마나 되였는가를 물어주시였고 놀이장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시고서는 말도 시켜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세쌍둥이들과 마주앉으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세쌍둥이들이 태여났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방에 들리시여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는가를 알아보시고 육아원에서도 애육원에서처럼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고있는데 대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과 애육원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볼이 오동오동하다고 하시면서 올해부터 그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 씩 먹이시겠다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육아원, 애육원의 아이들에게 고기, 물고기는 물론 영양가높은 곶감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한 인민군부대들에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할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서나 더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 법적으로 담보되여있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각 도와 직할시들에 육아원, 애육원들이 설치되여 운영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뚜렷한 과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푸짐한 식탁과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서 선결조건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아이들의 보육과 지능계발, 체력단련에 필요

한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려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각 도와 직할시들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먼저 본보기를 정하고 그를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② 국제아동절에 찾아오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원아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６.１절을 맞이한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원아들이 만경대유희장에도 가고 옥류관에서 국수도 먹었으며 일군들과 주변사람들의 관심속에 운동회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명절을 보내고있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그이께서 애육원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원아들이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였다.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달래이시며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의 볼을 어루만져주신 그이께서는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맛있는것을 먹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꼽으며 자랑하는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쇠고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아버지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노래를 불러드리는 원아들에게 그이께서는 박수도 쳐주시였다.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녁밥을 먹는 원아들에게 어느 음식이 맛있는가 물어주시며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여러가지로 해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보내준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어떻게 가공하여 먹이는가도 알아보시고 꿀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먹이는 방법도 알려주시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면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고 키크기운동을 비롯한 체력단련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면 애육원의 교양원들이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식 한명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는데 교양원들이 숱한 원아들을 맡아 수고가 많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당에서 대동강반에 현대적인 육아원, 애육원을 일떠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다음해에는 새로 건설된 애육원에서 6.1절을 쇠게 될것이라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였다.

③ 사랑의 요람, 원아들의 보금자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어느날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건축물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내부시공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과 미래사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게 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각 도들에도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같은 보육 및 교양시설을 꾸려주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무럭무럭 크도록 하게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평양애육원, 육아원이 완공되였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월 어느날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에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 지능놀이실, 치료실을 비롯하여 250 여개의 방들이 꾸려져있으며 원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들,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공원, 갖가지 유희오락시설과 오락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볼수록 희한하고 황홀하다고,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고 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는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요소요소가 생활환경이자 교육교양장소답다고 하시며 이런 시설을 꾸려놓은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원아들을 잘 키우는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보육원, 교양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원아들이 궁궐같은 요람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넘친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과시되게 되였다고 다시금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만도 건설의 대번영기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을 수많이 일떠세운 조선인민군 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또다시 주시였다.

2) 행복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게

① 세계적인 멋쟁이야영소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 월 어느날 새로 개건하고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겨울철조건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영각과 식당의 개건보수를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친선소년회관의 설계가 특별히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야영생들이 이곳에서 영화와 여러가지 록화편집물도 마음껏 볼수 있게 최신식영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들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넓고 시원하게 닦아놓은 운동장을 보시고 륙상주로를

만들어주고 축구장바닥에 인공잔디까지 깔아주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이번에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현대적인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관도 새로 꾸려주고있는데 야영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영소에 수족관과 조류사도 새로 건설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야영소가 없을것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영생들이 야영의 나날을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수 있게 그에 필요한 각종 전자유희시설들과 문화오락기재들도 당에서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사업은 올해 건설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건설해야 한다고, 힘이 들어도 질적으로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떳떳이 넘겨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 월 어느날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여러곳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구내에 써붙인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구호를 보시고 정말 좋다고, 저 구호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터친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을뿐만아니

라 요소요소가 우리의 얼굴이 살아나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보장되였으며 당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당이 바라는 기준에서 개건된것만큼 마무리를 잘하고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혁명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사랑의 력사를 길이 전하며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궁전으로 그 이름을 더욱 떨칠수 있게 되였다.

어머니당이 후대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인 야영소는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멋쟁이건축물,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며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② 끝이 없는 후대사랑의 자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 월 어느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볼수록 잘 만들었다고, 아이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여서 더욱 마음에 든다고, 《대동강》상표를 척 붙이니 얼마나 좋은가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급강하물미끄럼대설치를 손색없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다음기 야영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리용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조약대와 수조를 보아주시고 시공을 잘했다고 평가하시면서 야외물놀이장에 항상 맑은 물이 넘쳐날수 있게 물려과를 잘하라고 이르시였다.

새로 꾸린 거울집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야영소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영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퍼지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족관을 돌아보시면서 상어를 비롯한 희귀한 물고기들의 종수와 마리수가 늘어났다고 기뻐하시였으며 해수욕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야영생들이 해양체육도 할수 있게 돛배도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하고있는 야영소의 전용역인 송도원역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야영생들을 위한 직통렬차를 마련하고 운행준비까지 다 해놓았는데 역사를 야영생들의 편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개성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품을 넣어 꾸려준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의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야영소의 일군들, 교직원,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개건하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 월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주체 78(1989)년 5 월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과학기술소조실, 음악예술소조실을 비롯한 각종 소조실과 활동실, 체육관, 수영관, 극장이 갖추어져있는 궁전에서는 하루 5 000 여명의 학생소년들이 여러가지 과외소조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해가고있다.

궁전 현관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을 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들이며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명제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무용소조원의 춤추는 모습, 가야금과 손풍금을 배우는 소조원들의 연주를 보아주시고 녀중창도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서예와 콤퓨터, 수영, 롱구를 배우는 소조원들의 모습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후비들

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궁전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이 높아야 아이들의 재능의 싹을 제때에 찾아 활짝 꽃피워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교원대렬을 잘 꾸리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펴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궁전건물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 《달려가자 미래로！》라는 글발을 세우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을 올해중에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 자재보장,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개건에서 나서는 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나라의 왕들인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사랑의 요람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개건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자고 말씀하시였다.

6. 과학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1) 새해벽두에 새기신 사랑의 자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어느날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대군을 키우시여 당의 두리에 성벽처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정중히 모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늘 위대한 수령님들을 뵈옵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으며 사업하고 생활하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고 첨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 년을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국가과학원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과학

기술성과의 알찬 열매로 조국의 부흥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2013년에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운것처럼 당에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은정과학지구에 2014년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명절이 멀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의 품,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고 하시면서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보다 큰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서게 될 연풍호를 찾으시였다.

2013년 몸소 배를 타시고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신데 이어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위해 현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볼수록 경치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말씀하시였다.

여름철에 보았을 때에는 숲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정말 멋있었는데 겨울철에 보는 풍경도 그에 못지 않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풍호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이 곳에 세상에 다시 없는 과학자휴양소를 지어주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게 해주자고 하시면서 설계와 자재보장,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였다.

2) 과학자들이 받아안은 큰 선물

①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 월 어느날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바라보시며 공사장전역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살림집들에 들리시여 내부구조가 살림살이에 편리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살림집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밑에 건축물을 백점, 만점짜리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는것은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대상별, 단계별공사과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감으로써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몸소 건설현장에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속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날마다 자기의 훌륭한 모습을 드러내였으며 드디여 10 월 어느날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속에 솟아오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24 개 호동의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공원들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색타일로 보기 좋게 장식된 살림

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희한한 풍경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잘 건설되였다고, 이 지구가 몇개월사이에 천지개벽되였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또 하나의 리상적인 주택지구라고 하시면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은정과학지구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같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더 건설하여 이곳을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전변시키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에 입사하게 될 과학자들과 함께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② 연풍호기슭에 솟아난 과학자휴양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어느날 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에서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는 휴양소

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을 문명국의 체모에 맞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세워주기 위한 사업과 가구비품제작을 따라세우며 휴양소운영준비도 착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휴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속도면 당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날자에 휴양소를 완공할수 있을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8월 어느날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시작이 절반이라고 벌써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온다고, 당의 결심이라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이 역시 다르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세계적수준에서 갖춘 휴양소가 완공되면 과학자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과학연구사업으로 쌓였던 피로를 풀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하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연풍과학자휴양소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까지 일떠세우면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 1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군인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맞게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건설공사를 립체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계획대로 드팀없이 밀고나감으로써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훌륭히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자고 다시금 당부하시였다.

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휴양소관리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설비와 비품들,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와 륜전기재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 어느날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사랑의 자욱을 또다시 새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배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니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한폭의 그림같았다고, 자신께서 그려본 황홀하고 희한한 선경이 실물로 펼쳐졌다고,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절경이라고, 짧은 기간에 이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휴양소종업원살림집과 탁아소와 유치원도 만족하게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 우리 조국의 모습,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관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③ 미래과학자거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어느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살림집들을 바

라보시며 외벽을 곡면으로 처리하니 마치 대동강에 떠있는 돛배처럼 보인다고,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가 반영된 특색있는 멋쟁이건축물,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는 걸작품이라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늘 강조하지만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그 담당자들인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대동강반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 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들도 꾸려주게 되면 옹근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500 세대를 더 지어주는 문제도 빠른 기간안에 검토하고 결심하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에 고무된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나날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며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 어느날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돛배형식의 초고층살림집을 바라보시며 외벽에 타일까지 붙이니 정말 멋있다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구현된 건축물,

나날이 발전하는 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이 당중앙의 호소에 호응하여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답게 일을 잘하고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월 어느날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건축물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대걸작품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고급호텔같다는 일군들의 반영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살림집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려졌다고, 집주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하게 되였다고, 교육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자신께서는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공된것만큼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고, 교원, 연구사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3) 기상수문국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 월 어느날 기상수문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잘하여야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농업과 수산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자연피해를 제때에 막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상기후조건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일기예보에 필요한 자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들을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자면 기상수문국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상수문사업은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연구사, 예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단기, 중기, 장기예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날씨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 교통운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면서도 친절하게 통보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관측망들을 잘 배치하고 기상관측설비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상수문국의 일군들과 연구사, 예보원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상관측과 예보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성을 다 바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7. 문명국건설에서 큰 걸음을 내짚도록

1) 제 13 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제 13 차 전국교육일군대회가 9 월 1 일부터 6 일까지의 기간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에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조선로동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구호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와 기본고리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는것이 오늘 조선로동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구호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 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방침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구현해나가며 교육사업을 우리 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교육과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며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과 함께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방도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모든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맡고있는 중대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조선을 21 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밝혀준 불멸의 교육대강이였다.

2) 몸소 보아주신 신작음악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 월 어느날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조직된지 불과 2 년 남짓한 기간에 자기의 고유한 얼굴과 막강한 창작실력을 가진 멋쟁이악단, 새 세기 조선의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관록있는 예술단체로 일약 솟구쳐올라 조선인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는 모란봉악단이 새로 창작형상한 명곡들을 가지고 신작음악회무대를 펼치였다.

온 몸에 새힘이 솟게 하는 음악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음악회,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서로 일관된 음악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이 준 과업을 열백밤을 패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 경쟁열풍이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풍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남김없이 발휘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 모란봉악단에서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하였을뿐아니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실력과 기량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함으로써 작품창작형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예술창작창조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인민들의 심장속에 심어주고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특히 우리 선률이 제일이고 우리 장단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민요창작에 힘을 넣으며 우리 식의 대중음악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정서적요구에 맞는 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란봉악단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드높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3) 제 9 차 전국예술인대회참가자들이 명작창작의 불길을 높이 들고나가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 9 차 전국예술인대회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5 월 19 일 4.25 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문학예술의 개화발전에 공헌한 문학예술부문 공로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새 시대 문학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문학예술을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사상공세의 음악포성, 노래포성을 힘차게 울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인민이 사랑하는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완성된 곡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끝없는 흥분으로 높뛰게 하였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종목들로 장내를 들었다놓으며 출연자들은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는 시대의 벅찬 숨결, 사랑과 정으로 뜨거운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노래형상과 열정적이며 세련된 기악, 높은 예술적기량과 화려한 무대배경 등 황홀한 음악세계는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총진군대오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으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승리와 번영의 최전성기로 빛내여나갈 문학예술인들의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펼쳐보인 출연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으며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4)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를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 월 어느날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사회에 들끓는 분위기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데서 영화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만화영화제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그것을 불씨로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에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만화영화창작에 큰 힘을 넣어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우리 인민의 사상과 감정정서에 맞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연구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사

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화영화제작에서 지덕체교양의 영화라는 고정격식화된 틀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주제령역을 넓히고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집단주의, 계급교양 등에 이바지하고 과학적인 판단과 추리, 론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며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키워주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소년들과 학생들, 근로자들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잘 알수 있게 력사물주제의 만화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화영화제작에서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배치되는 흥미본위주의, 자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주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적대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의 현대화, 과학화, 콤퓨터화, 수자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만화영화는 독창성과 매력, 높은 형상수준과 빠른 창작속도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고, 오래전부터 세계만화영화계에 진출한 우리의 창작가들은 특출한 재능을 보여주어 우리가 도달한 만화영화제작기술을 남김없이 떨치였다고 하시면서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5) 5월 1일경기장을 세계적인 경기장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 어느날 5월 1일경기장 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5월 1일경기장은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5월 1일경기장을 세상에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개건하자면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건에서 힘을 넣어야 할 대상들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해주시면서 특히 관람석, 경기장바닥, 각종 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야 5월 1일경기장을 주체적인 건축술이 집대성된 체육시설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에서 설계뿐아니라 시공도 주제가 명백히 살아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람석의자와 관람홀, 계단부분의 색갈을 공화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처리하면 경기장의 면모가 이채로워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5월 1일경기장개건을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어느날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국가종합팀과 월미도팀사이의 녀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경기가 끝난 다음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에 참가하지 못하였던 탁구선수 김정동무를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김정선수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1일경기장이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체육시설의 상징,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건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5월1일경기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과 통이 큰 결단에 의하여 일떠선 세계적인 경기장이며 선군조선의 자랑이고 재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15만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5월1일경기장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훌륭히 전변시키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비상히 높아지고 특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하여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5월1일경기장을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 휴양소처럼 꾸려진 메아리사격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월 어느날 새로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메아리사격관의 설계와 시공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니 마치 호텔에 온것 같다고, 사격관마크도 특색있다고 하시면

서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현대적인 여러 사격장과 활쏘기장, 전자유희오락시설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잘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메아리사격관의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3 월부터 봉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격관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메아리사격관을 잘 관리운영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사격관운영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7)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월 24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담화에서 먼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단군릉을 현지지도하신 20 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단군릉개건사업과 민족유산보호사업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담화에서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으로 모든 일군들이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8) 기별도 없이 찾아오신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어느날 아무 기별도 없이 문득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의 의료일군들, 인민들은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크나큰 경사와 행복에 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인민들과 의사들에게 원수님께서는 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자고 달래시였다.

그이께서는 류경치과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루에 환자들이 몇명이나 찾아오는가, 당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과 가족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시고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 어디가 아픈가를 다정히 물어주시고 의사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궁전같은 병원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로인들의 손을 잡아주신 원수님께서는 건강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니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류경치과병원을 건설하기를 잘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의 물질기술적토대와 환자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치료사업의 정보화실현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콤퓨터와 륜전기재 등을 당에서 마련해주겠다고, 병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의료설비와 기재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애호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옥류아동병원에도 들리시여 병원일군들로부터 관리운영과 의료봉사활동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보건정책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데서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이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9)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 월 어느날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양묘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이곳을 찾으시여 중앙양묘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푸른 숲 설레일 조국의 래일을 보는것만 같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안겨온다고, 우리 장군님은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생토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나무모생산기지를 유산으로 남겨놓으심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양묘장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토환경보호성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아글타글 노력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양묘장에서 묘목생산기지를 확장하여 더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며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 및 관리방법을 완성할뿐아니라 용재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는 물론 관상적가치가 있는 나무모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풍토순화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산림조성사업의 성과는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산림과학원을 현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신 후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산림조성사업은 장기성을 띠는 사업인것만큼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기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림,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이고 조국의 미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국산천을 푸르게 하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10) 주체조선의 장한 아들딸들로 내세워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월 어느날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최근에 진행된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며 눈굽을 적시는 선수들과 감독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이 거둔 경기성과를 축하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 참가하여 우승함으로써 공화국의 위상을 결사옹호보위하고 공화국기를 높이 날린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다시금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체육선수들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거둔 경이적인 성과는 조선인민의 높은 존엄을 걸고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이며 경기들마다에서 보여준 완강한 투지는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상 그대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선수들과 감독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을 통하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했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에서 이룩한 승전의 소식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으며 부강조국건설전투장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들에서 통쾌하게 승리하고 영예의 단상에 올라 장중한 애국가의 주악을 울릴수 있은것은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라는 자각을 안고 평시에 땀을 아낌없이 흘리며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응당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심리적부담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겨내면서 우리 당이 안겨준 배짱과 전법으로 굴함없이 싸워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 탁구혼성복식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경기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김정선수가 국제경기를 위해 조국을 떠나있어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다는것을 아시고 돌아오면 꼭 만나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선수들과 감독들이 앞으로도 더 높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에 모든것을 다 바쳐 노력함으로써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다투는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